

# 호날두, 2인자 설움 씻었다

## FIFA 최고 선수 '발롱도르' 5년만의 탈환... 아들과 시상대 올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포르투갈)가 2013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됐다. 호날두는 14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3년 시상식에서 최고 선수에게 주는 FIFA-발롱도르(Ballon d'Or)를 받았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것으로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27·아르헨티나), 프랑크 리베리(31·프랑스)와 함께 올해 FIFA-발롱도르의 최종 후보에 선정돼 경쟁을 벌였다. 2008년 호날두가 이 상을 받았고 2009년부터

4년 내리 메시가 발롱도르의 영예를 안았다. 호날두로서는 5년 만에 정상 복귀인 셈이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호날두는 2013-2014시즌 20골을 작렬, 프리메라리가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다. 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9골을 몰아쳐 이 부문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5년 연속 수상을 노린 메시는 탈세 의혹과 부상 등이 겹치며 예년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 호날두의 수상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돼왔다. 4살난 아들과 함께 시상대에 오른 호날두는 눈물을 참지 못한 가운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와 국가대표팀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

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11에는 호날두, 리베리, 메시 등 발롱도르 후보들을 포함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스웨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등이 선정됐다. 독일 국가대표 골키퍼 니키 케슬러가 올해의 여자 선수로 뽑혔고 유프 하인케스 전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자크 로제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FIFA 회장이 주는 특별상, '축구 영웅' 펠레는 발롱도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페어플레이상은 아프가니스탄 축구협회에 돌아갔으며 올해의 골에는 이브라히모비치가 2012년 11월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페널티 지역 밖에서 오버헤드킥으로 올린 득점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 무등산 정상서 리그 정상을 외치다

## 광주 FC 화합의 등반... 팀 리빌딩후 첫 훈련 성과 격려

광주 FC가 무등산에서 2014시즌 재도약을 외쳤다. 광주 FC 선수단과 프런트는 14일 오전 무등산 중머리재까지 화합의 등반을 하며 K리그 클래식 복귀를 다짐했다. 지난 시즌 승격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올 시즌 화합과 소통으로 1부 리그 재진입을 이루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또 앞서 진행된 1차 체력훈련의 성과를 돌아보고 고된 훈련을 소화해낸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3일 시즌 첫 훈련에 들어갔던 광주는 특별한 휴식일 없이 12일간 훈련을 이어왔다. 2014시즌을 위해 대폭적인 선수단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긴장감 속에 훈련이 진행됐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선수들의 의욕도 높았다.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골키퍼 제중현은 "체력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살이 조금 빠졌지만 훈련을 잘 소화했다. 새로운 선수들과 팀 분위기도 적응했다. 훈련에 앞서 미리 물도 만들고 훈련 준비를 잘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기일 감독대행도 1차 체력훈련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수들의 의지와 자율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남 감독대행은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훈련에 따라왔다. 새로운 선수들이 2부로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1부로 올라가자는 마음가짐으로 팀에 들어왔다.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1부로 올라가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내 속을 꿰뚫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팀 구성이 많이 달라졌는데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라 경험 많은 선수를 데

려왔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다"고 1차 체력훈련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기초 체력을 쌓고 호흡을 맞춘 선수들은 16일부터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29일까지 계속되는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기초적인 기술에 다들 준비를 할 계획이다. 광주 스타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패스 연습, 볼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등 기본적인 것들을 다뤄왔다. 그 다음에 수비 훈련을 진행할 생각이다. 4명에서 6명에서 11명에서 하는 수비 훈련을 실시한 뒤, 경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선수단 14일 무등산 중머리재 등반에 나서 1차 체력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4시즌의 선전을 다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양용은은 대기만성형 선수"

## 美 골프전문지 톱 11 선정

양용은(42·KB금융그룹·사진)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대기만성형 골프 선수 톱 11'에 이름을 올렸다. 골프다이제스트는 13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한 지미 웨이크(35·미국)를 조명하며 다른 대기만성형 선수들을 함께 거론했다. 2001년 프로에 데뷔한 웨이크는 2013시즌까지 우승이 없다가 2013-2014시즌에만 2승을 거두며 '늦깎이'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양용은에 대해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으며 유명해진 선수"라며 "한국에서도 19세가 돼서야 골프로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32세가 돼서야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34세 때인 2006년 한

국오픈 우승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고 양용은에 대해 설명했다. 양용은은 이 대회 우승으로 그 해 말 HSBC챔피언스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고 이 대회 우승을 받으면 PGA 투어 진출의 초석을 닦는 것이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양용은과 웨이크 외에 제이슨 더프너, 맷 루차, 스티브 스트리커, 버바 왓슨(이상 미국), 비제이 싱(인도), D.A 포인츠(미국),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 랜 듀크, 케빈 스트리틀(이상 미국)을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선수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 '바르샤 유스' 이승우 눈에 띄네

## 알 카스 인터내셔널컵 1골 1도움 맹활약... 팀 승리 견인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카데테A(14~15세 팀)에서 뛰는 이승우(16·사진)가 1골, 1도움을 올려 팀 승리에 힘을 거들었다. 이승우는 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에스파이어 아카데미 풋볼 필드에서 열린 알 카스 인터내셔널컵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역전골 도움을 올리고 썬더볼로 넣었다. 이승우의 활약 속에 바르셀로나는 파리 생제르맹을 4-3으로 꺾었다. 선발로 출전한 이승우는 88분을 소화했다. 이승우의 공격 본능은 후반 들어 나타났다. 이승우는 양팀이 2-2로 맞선 후반 5분 다니엘 카브레라와 이대일 패스를 주고받아 카브레라의 역전 골을 도왔다. 이어 바르셀로나가 3-2로 앞선 후반 31분에는 다비드 카르바할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찰라준 패스를 왼발로 밀어 넣어 승리에 썬더볼을 박았다.

이날 선발로 출격, 74분을 소화한 장경희도 1도움을 올려 팀 승리에 힘을 거들었다. 장경희는 바르셀로나가 0-1로 뒤진 전반 15분 파리 생제르맹 왼쪽 골 지역을 완전히 허물고서 팡발 크로스를 올렸다. 이것이 동료 카를레스 카스티요의 발에 걸리면서 골 그물을 갈랐다. 23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외에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AC밀란(이탈리아), FC포르투(포르투갈) 등 12개 유스팀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깃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관주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단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